

**담당 :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 02)560-4448 ㅣ Mobile : 010-7680-3103 ㅣ E-mail : media@klpga.org**

**배포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14:10 ㅣ 보도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14:10**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2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
| 2 | 기 간 | 2025년 5월 30일(금) ~ 6월 1일(일) |
| 3 | 장 소 | 더스타휴 [휴(OUT) / 스타(IN) 코스]  |
| 4 | 주 최 | Sh수협은행, MBN 매일경제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예선: 6,787야드, 본선: 6,678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출전선수 | 이예원, 박현경, 박보겸, 김민선7, 홍정민, 고지우, 지한솔, 박지영, 정지효 김시현, 송은아, 이채은2, 이소영, 박민지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2라운드] 11시 ~ 17시[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박민지 2라운드 중간합계 11언더파 133타(67-66) \*14시 기준 공동 선두**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8772>

**오늘 버디 7개, 보기 1개로 마무리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어땠는지?**
샷이 굉장히 잘 돼서 버디 찬스가 많았다. 코스 자체는 까다로운 편이지만, 오늘은 바람도 거의 없고 그린도 잘 받아줘서 공이 크게 튀지 않았다. 6언더파를 쳤지만 버디를 놓쳐 아쉬운 홀도 있었는데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하루다.

**최근 들어 버디 수가 꾸준히 많아졌다. 본인의 샷과 퍼트 컨디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에는 예전에 우승했던 때의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쳤는지 리마인드하며 연습했다. 시즌 초반에는 왼쪽으로 감기는 공이 자주 나왔지만, 지금은 샷이 훨씬 안정돼 가고 있다. 물론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느낀다.

**1라운드 때는 ‘톱10 안에 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어떤가?**
어제 순위가 공동 11위였는데, 그 정도면 톱10 안에 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코스는 버디를 많이 잡아야 하기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한다.

**내일 최종 라운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해야 할 플레이에만 집중하려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해냈을 때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올해 작년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한 해가 더 쌓이면서 노련함이 생긴 것 같다. 투어 9년 차가 되다 보니 경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시야가 생겼고, 예전부터 약점이었던 쇼트 게임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늘 한 번의 보기 상황이 있었지만, 어프로치 실력은 분명히 향상됐다고 느끼고 있고, 그게 중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한다.

**◈ 최가빈 2라운드 중간합계 11언더파 133타(64-69) \*14시 기준 공동 선두**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391>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버디 찬스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내리막 슬라이스 라인의 퍼트였다. 두 컵에서 세 컵 정도 휘는 심한 라인이라 공격적으로 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초반엔 소극적으로 플레이했다. 그렇게 몇 개를 놓치고 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먹고 퍼트를 했고, 그 후로는 버디도 나오고 경기가 잘 풀린 것 같다.

**작년에 비해 올해 우승 경쟁이나 인터뷰 기회가 많아진 느낌이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딱 하나가 확 좋아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조금씩 좋아진 것 같다. 비거리나 체력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우승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흔한 말이지만, ‘내 플레이만 하면 된다’는 말이 맞다. 정말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어서 집중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겠다.